

광주 제2수원지내 시민힐링쉼터 내달 개방

4천㎡ 청단풍·잔디 등 조성
 피크닉 공간 18개 면 마련
 무료 예약제 10월까지 운영
 취사·전기 사용은 전면 금지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제2수원지 내 유희(遊休)부지가 쉼터 등을 갖춘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돼 다음달부터 개방된다. 이번 시민힐링쉼터 조성사업은 “모든 공공자산을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윤창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3월 동구 용연동 제2수원지가 34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된데 이은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방했던 상수도부지 1만8000㎡ 중 유희부지 4000여㎡에 청단풍, 대나무, 조팝나무, 산철쭉, 잔디 등 토종수종을 심었다. 도심 가까에서 무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고 가족단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18개 면)도 마련됐다. 수십년생 매화나무, 은행나무, 뽕나무 등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개방시간은 수원지와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제2수원지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에 축조돼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제2수원지 내 유희(遊休)부지가 피크닉장으로 새롭게 단장돼 5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시 제공>

돼 왔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화순적벽 개방에 이어 공공시설물 개방의 일환으로 제2수원지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그동안 제2수원지 담을 따라 우회했던 무등산 탐방로도 제2수원지 정문~용추폭포~장불재~서석대로 이어지게 돼 중심사로 집중된 무등산 탐방객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쉼터 공간 사용은 무료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에 사전 예약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쉼터 내 취사와 전기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하천 주변에 안전울타리 137m를 설치하고, 소화기(8대) 비치, 상시 안전관리요원(2명) 배치 등 안전조치도 마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2단계 사업으

로 잔여공간에 쉼터와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안내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ater.gcity.net)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숲은 안식처” 도민 10명 중 9명 매월 방문

전남도 ‘숲속의 전남’ 설문조사
 ‘숲’ 정책 참여 희망 71.8%

도민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매달 1차례 이상 숲을 찾아 휴식을 취하며 힐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전남의 대표 숲으로 장성 축령산, 장흥 우드랜드, 담양 관방제림을 꼽았다.

전남도가 도내 20대 이상 주민 1256명을 대상으로 ‘숲 속의 전남’ 만들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8명(71.8%)이 이 시책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50여일 동안 ▲전남 숲에 대한 인식 ▲‘숲 속의 전남’에 대한 인식 ▲‘숲 속의 전남’ 브랜드 시책 참여 의사 등 3개 분야 12개 항목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 숲 방문 횟수를 묻는 질문에

는 1055명(86.7%)이 ‘월 1회 이상 숲을 방문한다’고 응답했고, ‘월 4회 이상 방문’한 도민도 378명(30.2%)이나 됐다. 숲을 방문하는 이유는 ‘휴식과 힐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57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숲 속의 전남’ 브랜드시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970(77.2%)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285(22.8%)명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는 ‘관광서방문을 통해 알게 됐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 목표는 관광(여행), 자연경관, 숲 보전, 산림소득 자원 육성 중 ‘관광에 목표를 뒀다’는 답이 466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연경관’ 285명(23%), ‘숲 보전’ 274명(22.1%), ‘산림 소득자원 육성’ 206명(16.7%) 순이었다. ‘숲 속의 전남’ 성공을 위해서는 798명(64.7%)이 ‘시군, 민간단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성공 요소는 ‘소요 예산 확보’(476명, 38.5%)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외에도 도민의 참여, 홍보, 도민에 대한 ‘숲 속의 전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숲 속의 전남’ 브랜드 시책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98명(71.8%)이 나무 심기 참여를 희망했고, 심는 장소는 생활주변 유희지 580명(46.6%), 산 258명(20.7%), 공원 236명(19.0%), 아파트 127명(10.2%) 순이었으며, 희망 수종은 편백, 소나무, 느티나무, 황칠, 동백 순이었다. 나무 심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로 ‘한 가정 한 나무 심기’ 277명(22.2%), ‘기념일 나무 심기’ 231명(18.5%), ‘아파트 정원 만들기’ 235명(18.8%) 순이었고, 숲 돌봄이 활동은 773명(61.7%)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윤명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 모두가 ‘숲 속의 전남’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희기자 chad0l@kwangju.co.kr

내일 무등산 정상 개방

시내버스 증편 운행

광주시는 오는 30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 맞춰 교통편의를 위해 원호사행 1187번 노선 등 시내버스를 증편·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상 개방 구간은 정상 군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 0.8km다. 누에봉에서 정문을 통과한 다음,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유턴해 다시 부대 정문을 나오는 코스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광주시는 봄꽃과 함께하는 무등산 개방 행사에 탐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무등산 국립공원(원호사)행 1187번 노선을 평소 주말보다 9대 증차해 총 17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원호사 방면으로는 1187번과 1187-1번 등 2개 노선 20대를 205회를 운행하고 중심사 방면은 8개 노선 106대를 1127회를 운행한다. 장원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반기 재정집행 6조원 늘린다

부동산 규제 완화 내년 7월까지 연장

4+1 산업개혁안 주요 내용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은 경기 진작과 구조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취약 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출·내수 동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부동산 규제 완화 연장 등의 수단으로 경기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6조5000억원 ↑ LTV·DTI 완화 연장
 정부는 우선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운용의 신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등을 통해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2017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에 최고 수준 세제 혜택...정책자금 80조원 공급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

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산·기·은, 산·기·보 등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재원(14조2000억원)을 활용한 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지원 강화...기업 M&A 때 ‘세금납부 연기’ 범위 확대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시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되던 기업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은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경기 민감업종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을 통해 추진한다. 경기 민감업종인 해운·조선업종은 정부내 협의체가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채권단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올해부터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거쳐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에과도르 지진 피해자에게 희망을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회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에과도르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연세 지진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금 기탁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 : 2016년 5월 31일까지
 ◇계좌번호 (예금주 : 전국재해구호협회)
 ·국민은행 054990-72-010655 ·기업은행 600-000160-97-655
 ·농협 790095-59-557586 ·신한은행 5620-84-85057661
 ·외환은행 922-043444-364 ·우리은행 622-929064-18-847
 ·하나은행 261-913575-63837
 ◇인터넷 기부 : www.relief.or.kr
 ◇휴대전화 문자 기부 : #0095 (1건당 2000원)
 ◇성금모금 안내 : 1544-9595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

부 고

2016년 4월 29일

분향소 : 남부대학교 협동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발인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30일 오전 10시 남부대학교 협동관 대강당
 장 지 : 전남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선영하

학교법인 우암(愚岩)학원 설립자 · 학원장 조용기 선생
 실인이신 권사 이연희 이사장께서 2016년 4월 28일
 오전 8시 49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기에
 우암학원장으로 발인예식을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위원장	황승룡	자	조성범	성수	열	준범
원	구원주 권재홍 김갑곤 김년두 김두희 김영신 김용선 김용일	여	성경			
자부	김영숙 양은자 이봉희 유명미	자				
사위	권동오	자				
손	송기 현기 선기 은기	자				
손녀	현경 현주 선주 은주 희주 진주	자				
손부	이예슬	자				
외손	권준성	자				
장례집례	주경수 목사	장례위원장	김중재 김형남 박관주 박상환 박판서 박현순 서병규 송현호	원	구원주 권재홍 김갑곤 김년두 김두희 김영신 김용선 김용일	심봉식 유재영 이구학 이규섭 이성열 이순범 이은철 이정섭
실행위원장	조현치	장례집례	최봉남 최석태 최정원 홍경표	원	이해석 정상원 조상식 최경남 최필선 허남연	김옥환 김원진 김택 류장규 백영애 유영복

학교법인 우암학원 임직원 일동
 남부대학교 교직원 일동
 전남과학대학교 교직원 일동
 옥과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우암유치원 교직원 일동
 우암어린이집 교직원 일동
 우암시니어클럽 임직원 일동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임직원 일동
 재단법인 우암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개별보고 생략) * 연락처 : 남부대학교 총무처 (062-970-0029)